



쓰레기통에서도 희망은 솟는다

전국의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이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촛불 문화제는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외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신명나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부모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지만 그 모습과 개성은 각기 다양합니다. 얼마 전 고 이병철씨를 추모하는 촛불 추모제에서 이색 가방(?)을 맨 시민을 만났습니다. 커

다란 쓰레기통을 가방 삼아 메고 나온 시민은 쓰레기통 한 쪽에 이것저것 우리사회가 버려야 할 것들을 써 붙여 놓았습니다.

이 시민의 바람처럼 저 쓰레기 통에 안 좋은 것들을 담아서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을 뜨게 무섭게 치솟는 물가, 매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 촛불 문화제를 놓고 의견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시끌시끌합니다.

우울한 이야기, 가슴 아픈 일들 커다란 통 하나에 담아 버리고 신나는 대한민국을 노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리빙 센스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컴퓨터 작업
 - 모니터를 볼 때 60cm 이상 떨어져 보고 모니터를 눈보다 약간 아래 두고 화면을 10~20도 정도 뒤로 젖힌다.
 - 방은 적당히 밝게 하되 모니터에 빛의 반사가 있으면 필터가 있는 보안경을 써주도록 한다. 모니터에는 먼지가 많이 끼므로 자주 닦아준다.
- 독서자세
 - 독서를 하면 눈의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 눈이 마르고 어두운 불빛에서는 책을 눈 가까이하므로 눈의 조절근육이 피로하여 피로감과 통증을 눈에 느끼게 된다.
 - 독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35~50cm 정도 떨어지게 하고 조명을 밝게 하되 책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명의 방향을 책에 비스듬히 하는 것이 좋겠다.

I love MY student



이은화

'사랑의 대화' 통해 만나는 미래 주인들

우리 반 아이들은 점심시간을 두려워한다. 번호대로 돌아가며 월, 화, 목, 금 만나는 은밀한 만남을 몹시 두려워(?) 한다.

그 이유는 '사랑의 대화' 시간 때문이다.

우리 반 열 교실은 특수반이 있고 그 옆에는 1년에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하는 예절실이 있다. 병풍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어찌 보면 한적한 그곳에서 단둘이만 만난다. 그야말로 은밀한 만남이다.

은밀한 만남이니만큼 아이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이른다.

언젠가 그곳 병풍이 움직인 적이 있었다. 어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발 없는 병풍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곳에서 '김수호(가명)라고 하는 아이가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었다. 햇빛이 반사되어 보이는 그 아이에게 나는 엄히 말했다.

"안 나갈래?"

수호는 쓴살같이 그릇 예절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렇게 수호가 빠르면 예전에는 정말 몰랐었다.

수호뿐만이 아니다.

출입문 쪽에는 원승이와 닦은 무리들이 여기저기 달라붙어 우리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사랑의 대화'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타는 목마름이었나를 새삼 알게 되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10분의 시간.

나는 그 시간에 아이의 요즘 일상과 더불어 가

족관계, 장래희망, 친구관계,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 등을 말하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음을 잘 터놓지 않는다. 그러다가 침묵이 흐르고 나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연다.

'김석형'이라는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였다.

그 아이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얼마에서 재혼을 해서 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였다. 대화가 끝나고 그 아이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꼭 안아주고 기도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아이의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가 있었는지 몰랐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 아이와 같이 가슴 아파 했다.

또 '이상호'라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가슴이 찡했다. 이혼한 엄마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시고, 추석이냐 설이냐 설에만 내려오시기에 외가에서 자라는 아이였다.

그 아이는 발음이 또렷하지 못하고 수학 구구

단을 잘 외우지 못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는 축구를 참 좋아했다. 장래희망을 물었을 때 상호는 거침없이 장래희망이 '축구선수'라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축복하며 꿈을 잘 일궈가라고 알려주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공부시간에 가끔씩 손을 들고 발표를 한다. 비록 틀린 답이지만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기도 한다.

사랑의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없다. 가끔 부끄러워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무관심하러하면 대든다.

"오늘 사랑의 대화는 왜 안 하나요? 라고 말이다.

사랑의 대화는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비록 일에 쫓겨 약속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고 빼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 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우리 아이들을 일 년 동안 계속 만나갈 것이다. 내 마음과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순간까지...

(**합평초등학교 교사**)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17일(음 5월 14일 戊子)

- 36년생 여성은 먼저 화해하고 지출은 가절하고 의논하라. 48년생 지신을 낮춰라. 60년생 강물이 합류되니 파도소리가 높다. 72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가정에서 화복 하라. 84년생 작은 일이라도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03, 04
- 37년생 이웃을 살펴보고 힘겨우면 배가되어 돌아온다. 49년생 어릴수록 친구를 만나라. 61년생 협력자를 만나는 격으로 도움을 받는다. 73년생 집안 안장은 지숙되니 참을 일이 생긴다. 85년생 선택을 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13, 15
- 38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은 있다. 50년생 뜻밖의 술자리로 괴롭다. 62년생 큰 욕심을 내지 않는 한 좋은 날이다. 74년생 여러 방면으로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야 한다. 행운의 숫자: 05, 14
- 39년생 부부간의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봐라. 51년생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된다. 63년생 가정의 우환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75년생 주위의 기만과 허황된 문서를 조심해야 손실을 피한다. 행운의 숫자: 16, 13
- 40년생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52년생 친구가 다시 도와주고 세문서를 주고 가내는 경사다. 64년생 믿는 도끼가 위험하니 신중하게 살펴봐라. 76년생 합자 동업 신규투자는 절대 금하라. 행운의 숫자: 07, 12
- 41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득리한다. 53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은 없으니 자중하라. 65년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거나 이루기는 어렵다. 77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행운의 숫자: 11, 18
- 42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흥이 복으로 변하는 형상이다. 54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66년생 옛 일이 튀어나와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 78년생 가정에 소란사가 발생하나 조용히 해결한다. 행운의 숫자: 09, 10
- 43년생 마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55년생 연인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67년생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하라. 79년생 목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화해를 시도하라. 행운의 숫자: 19, 20
- 44년생 아늑한 보금자리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56년생 오늘은 밖에서 차를 조심하라. 68년생 겉으로는 좋으나 속으로는 상한 사람이 생긴다. 80년생 자신과 가정, 직장사이에 예로사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1, 17
- 45년생 의외의 특혜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57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6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협조자가 나타난다. 81년생 상반된 적장을 만난 경우니 백사를 신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22, 27
- 46년생 많은 일이 순조롭고 새롭게 주머니에 발생한다. 58년생 눈을 조금만 낮춰서 현실을 보라. 70년생 식구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2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행운의 숫자: 16, 23
- 47년생 과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59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71년생 조용한 후수에 들을 던지니 결과는 반반이다. 83년생 새로운 사업이나 허황된 문서를 눈물이나 나 신의를 회복하라. 행운의 숫자: 24, 2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제17회 光日盃 광주 전남 전남의대연

효과적인 공작
2회전 2국 3보(39~63)

白 김광식 5단 (주 승립) 黑 표정재 5단 (빛고을 교사회)

백 △는 흑이 '가'로 내려서면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 수는 속수로서 흑이 '참고도1'처럼 흑 1을 선수해두고 11까지 넘어가면 백이 실속이 없는 수였다.

표정재 5단이 이곳을 보류하고 흑 39로 손을 돌리자 김광식 5단은 못내 이곳이 신경쓰이는 눈치더니 결국 백 40으로 붙여 이곳의 뒷맛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 공작을 펼친다.

백 42로 맞붙은 것은 모양을 정리할 때의 상응의 맥점인데, 표 5단은

흑 47까지 상대의 의도대로 박자를 맞춰주고 만다. 흑 43으로는 '참고도 2'의 흑 1로 끼워 있고 5로 아래에서 단수해야 했다. 이랬으면 위의 흑 한 점은 계투이고 끊어 둔 백 두점만 부담이 된다. 손해를 의식한 표 5단, 63까지 맹렬한 반격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영훈 전자랜드배 16강

박영훈 9단이 16일 서울 한국기원에 열린 제5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32강전에서 김수장 9단을 물리치고, 마지막 남은 16강 티켓을 차지했다.

또 이날 한상훈은 16강전에서 맞붙은 백성호 9단과의 경기를 166수 만에 불계승으로 마무리하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박영훈은 30일 전기 우승자인 강동윤 7단과 8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이미 경기가 끝난 다른 조에서는 김일환·목진석 9단, 한종진 7단, 윤혁 5단이 8강에 올라 있다. 8강의 여섯 번째 진출자를 가리는 이창호 9단과 김승재 9단의 대결은 21일 계속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굿모닝 잉글리쉬 <1183></p> <p>Have you talked to John today? 오늘 존에게 얘기했었어?</p> <p>A: Have you talked to John today? B: No, and I don't plan to. A: I was wondering if he offended you. I guess he did. B: Yeah, and he'd better figure it out.</p> <p>A: 오늘 존에게 얘기했어? B: 아니, 그리고 싶지 않아. A: 혹시 그 사람이 너를 화나게 한거니? 그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 B: 응 그래, 그 사람이 그 점을 아는 것이 좋을 걸.</p> <p>* don't plan to ~ ~ 하지 않을 거야. * offend : 화나게 하다 * figure out : 알다 * 혹시 너, 초콜릿을 좋아하니? = I was wondering if you liked chocolate.</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183></p> <p>今日の掲示板(けいじばん), 見(み)た? 오늘 게시판 보았니?</p> <p>A: 今日の掲示板(けいじばん), 見(み)た? B: ううん、まだだけど。 A: アルバイトの募集(ぼしゅう)が書(か)いてあったよ。 B: そう、じゃあ、見(み)てくるよ。</p> <p>A: 오늘 게시판 보았니? B: 아니, 아직 보지 않았는데. A: 아르바이트 모집이 적혀 있어. B: 그래, 그럼 보고 올게.</p> <p>掲示板(けいじばん): 게시판 募集(ぼしゅう): 모집</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160></p> <p>我哥哥今年二十一岁了。 우리 형은 올해 21살이야</p> <p>A: 你哥哥今年多大了? Nǐ gēgē jīnnián duō dà le? B: 我哥哥今年二十一岁了。 Wǒ gēgē jīnnián èrshíyī suì le. A: 你姐姐今年多大了? Nǐ jiějie jīnnián duō dà le? B: 我姐姐今年二十五岁了。 Wǒ jiějie jīnnián èrshiwǔ suì le.</p> <p>A: 내 형은 올해 몇 살이야? B: 내 형은 올해 21살이야. A: 네 누나는 올해 몇 살이야? B: 네 누나는 올해 25살이야.</p> <p>多大 [duō dà] (나이가)얼마인가 今年 [jīnnián] 올해, 지금</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p>	<p>한자 이야기 <800></p> <p>熱中(열중) 더울 열, 가운데 중</p> <p>열중(熱中)은 '뜨겁다(熱)'와 '가운데(中)'라는 뜻이 결합된 한자어이지만, 현재는 '어떤 일에 정신을 쏟는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어떻게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출전(出典)인 '맹자(孟子)'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p> <p>"사람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여색(女色)을 좋아할 줄 알면 젊고 예쁜 소녀를 사모하고, 처자(妻子)를 두면 처자(妻子)를 사모하고, 벼슬하면 군주를 사모하고, 군주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가슴속에 열병이 나는 것이다." (萬章,上)</p> <p>군주에게 뜻을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심리적 반응을 '열중'이라고 한 것이다. 주자(朱子)는 이 '열중'의 의미를 풀이하기를, '뜻을 얻지 못해 조금씩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열중'의 본의는 '뜻을 얻어' 마음속이 뜨거워진 상태'이고, 나중에 전의(轉義)하여 '뜻을 얻기 위해 조금씩 마음으로 어떤 일에 온통 마음을 쏟는다'가 되었던 것이다.</p> <p>이렇듯 한자어의 본의 파악은 한자의 뜻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한자어의 특성이며 한자어의 의미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